

韓國의 人口에 관한 研究

— 後進國問題를 中心으로 —

宋 鍾 克*

1. 序 說
2. 世界의 人口問題
3. 後進國의 人口問題
4. 韓國의 人口問題
5. 結 語

一. 序 說

「人口」(Population)라 함은 人間의 集團의 計數로서 政治的 또는 經濟的으로 區劃된 一定한 地域內에 있는 住民의 總體를 意味하며 國籍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總稱인 「國民」, 血統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總稱인 「人種」, 精神的 文化的으로 統一된 사람들의 總稱인 「民族」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一定한 地域內에 있는 住民 全部를 따라서 그 地域內에 있는 外國人까지도 包含하게 되는 것이나 그 反對로 그 나라의 國民이라도 그 地域에 居住하지 않으면 包含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의 人口는 第1로 生物的인 存在로서 性的, 年齡的, 體質的인 構成을 가지고 있다. 世界의 여러나라 중에서 男性이 超過하는 나라도 女性이 超過하는 나라도 있다. 兒童이 많은 나라도 靑壯年이 많은 나라도 老人이 많은 나라도 있다. 또한 그것은 出生과 死亡, 移出과 移入을 통하여 항상 그 構成分子를 更新하면서 그 自身 上昇的, 停滯的 또는 下降的인 發展을 하는 同時에 그것에 따라서 또한 그 構成을 變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人口는 第2로 社會的인 存在로서 社會的인 制度, 習俗, 思想, 居住形態 등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 習俗, 思想, 居住形態 등은 나라에 따라서 또한 文化의 發展程度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家族主義의 原理에 立脚한 身分思想이 現在까지 널리 支配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人格 自由의 原理가 確立되고 民主主義思想이 支配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居住의 形態에 있어서도 農村的인 散居式이 거의 全部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都市的인 것이 支配的인 것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나라에 대하여 보더라도 人口의 發展과 함

* 經營 學科教授(經濟學博士)

게 그러한 社會制度, 習俗, 思想, 居住, 形態 등이 크게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第 3으로 人口는 經濟의 目的 및 手段이라는 意味에서 經濟的인 存在이다. 人口는 그 生存을 維持하는데 있어서 生活資料가 없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人口에 대하여 그것에 必要한 生活資料를 供給하는 것은 經濟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人口는 이러한 意味에서 經濟의 目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한 勞動力으로서 그 生活資料의 生産에 있어서의 한 要因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意味에서 또한 經濟의 手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人口는 이러한 生物的, 社會的 및 經濟的인 存在로서 一定한 地域에 있는 住民의 總體로서 그 自身の 生命을 營爲하고 生成衰亡하며 그 數에 있어서 增加減少하는 동시에 그 性的, 年齡的, 體質的인 構成에 있어서 變化하며 또한 그 發展過程에 있어서 그 社會的인 組織, 居住의 形態, 經濟의 方法 등에 있어서 變化하는 것이다. 이러한 諸事象間에는 相當히 緊密한 相互作用 關係가 存在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어떠한 意味에서는 이와같은 總體性에 있어서의 人間生活을 支配하는 內面的인 秩序가 存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註 1) 그러므로 人口를 研究하려면 이와 같은 人口의 生活, 生成, 衰亡을 表現하는 諸事實을 提示 叙述하며 이러한 全過程을 支配하는 內面的인 秩序를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人口要因^(註 2)이 미치는 社會的, 文化的 影響은 참으로 廣汎한 것으로서 人類의 바탕이 되는 人口는 모든 人間關係를 生成시키는 材料와 素材인 同時에 人口問題는 거의 다른 일체의 人間問題의 根底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註 3)

그러므로 現實의 人口는 단지 一定한 때에 賦與된 一定한 量으로서 觀念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단지 一定한 生活空間 중에서 지탱된다는 受動的인 性格만도 아니다. 量과 質을 가진 人口는 우리가 스스로 깊이 意識하지 못한 사이에 그 內容을 更新하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社會가 許容하는 生活空間에 지탱되면서 다른 편으로 스스로 그 生活空間을 즉 一般的으로는 그 生態的 環境을 改變하여 가려는 힘이다. 한 말로 하여서 人口는 그 自身살아가는 힘과 運命을 지닌 하나의 큰 生命體인 것이다.

이것은 一國의 人口를 左右하는 人口要因이 一定한 社會에서는 一定한 結合關係를 가진다는 것이며 時代와 社會에 따라서 각기 相異한 型을 나타내거니와 이러한 相互關聯性 즉 그 時代의 人口樣式도 또한 社會의 發展段階에 따라서 變化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단지 盲目的 偶然的으로 變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明確한 人口樣式의 型을 取하

(註 1) 南亮三郎 人口理論 千倉書房 1966 p. 18

(註 2) 出生, 死亡, 結婚이라는 3基本要素를 말함.

(註 3) J. O. Hertzler, The Crisis in World Popul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50, pp. 7-8.

면서 必然的인 힘을 가지고 歷史的으로 運動을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人口에 관한 모든 人間의 思考方式 例컨대 人口의 增加를 主張한다든가 憂慮한다든가 하는 樂觀論이나 悲觀論과 같은 人口思想의 變轉도 결국은 人口樣式의 史的 發展을 背景으로 하여서만 正當히 理解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社會의 發展段階에 있어서 자기 特有한 人口樣式을 成立시키며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그 社會의 人口問題를 解決하여야 하겠다.

人口問題는 社會의 發展에 따라서 (1) 原始 및 古代社會, (2) 前產業 社會, (3) 近代的 產業社會, (4) 高度產業社會로 轉移하면서 歷史的으로 그 發現形態를 달리하는 동시에 그 內容까지도 變轉시키어 왔으며 特殊한 政治目的에서 하는 觀察의 態度를 따로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純理論的으로 보아서 增加 또는 減退하는 人口는 소위 人口問題가 단순히 人口對 生活空間이라는 形式만으로 理解될 수 있는 것이라면 增加하는 人口가 問題가 되는 限 減退하는 人口와 같은 것은 問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人口增加에 의하여 生活空間이 좁아졌다는 問題는 人口減退에 의하여 解決될 수 있는 結果로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實的으로 人口가 增加 또는 減退하는 어느 경우에서도 人口問題로서 論議되는데에 人口問題라고 하는 重大性이 있는 것이다.

人口의 조밀화 즉 人口增加는 건전한 狀態의 自然的 所產으로서 同時에 高度文化의 前提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人口問題의 複雜한 獨自性이 있는 것이니 가장 強力한 人間의 本能과 幸福 그리고 國家와 經濟 및 勢力利害가 끊임없이 이 조密化에 拍車를 가하며 다른 편에서는 그 目的達成이 이것을 또한 危脅하는 것이다(註 4).

人口問題는 항상 격렬한 論爭의 領域이 되는 것이니 다루어지는 對象에 대하여서도 國際人口事情의 解釋에 있어서도 事態를 處理하는데 提案되며 또한 행하여지는 方法에도 意見의 不一致가 있다. 그러나 人口는 시시각각으로 增加一路를 더듬으며 地球와 國土의 有限性은 그 資源의 利用方法에 있어서의 人間의 創意와 勤勉을 且置하더라도 시급히 重大한 問題로 化하고 있는 것이다. 장래에 있어서의 人口와 그것에 상당한 生存資料와의 밸런스에 관하여 신중히 考察하려는 것도 이러한 艱박한 事態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二. 世界의 人口問題

第 2 次 世界大戰前後부터의 歐美出生率의 上昇傾向 그것이 歐美人口의 새로운 波動의 시초

(註 4) G. V. Schmoller, Grundriss der allgemeinen Volkewirtschaftslehre, 1. Teil (Zuerst 1900), 7-10. Aufl., Leipzig 1908, S. 183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는 차치하고 人口增加의 下降局面을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는 歐美諸國이 각기 自國의 出生率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부터 흡사한 波動을 경험하려는 世界殘餘諸國에 어떠한 種類의 귀중한 暗示를 주는 것이다. 새로운 人口樣式은 經濟의 合理化와 生活水準의 上昇과를 촉진시키었다는 공적의 반면에 이제부터의 經濟發展은 저하하는 人口波動의 국면을 배경으로 하여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큰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말로 하여 近代의 人口樣式이 초래한 自然的 歸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人口가 당면하고 있는 현하의 問題는 세계적인 규모에 있어서의 소위 人口爆發 (population explosion)이라고 하는 것이다. 19世紀의 世界人口의 大增加는 주로 歐美白人諸國 사이에 즉 이러한 諸國이 新人口樣式의 제 1 국면인 上昇의 人口增加의 국면을 경과하였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그 국면의 경과에는 장구한 年代를 요하였으며 死亡率의 저하라는 요인의 작용이 百年間이나 걸리는 오랜기간을 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死亡率의 저하는 단독 歐美先進國만의 특징은 아니며 나머지 세계의 低開發國이 연이어 더욱이 급속하게 死亡率의 저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歐美諸國이 百年을 소비한 위에 더욱이 生活水準의 上昇을 매개로 하여 실현한 死亡率의 低水準을 오늘날의 殘餘世界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단시일에 더욱이 生活水準의 上昇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세계의 人口爆發의 근원이 있다.

일찌기 「살아 남은 길」(註 1)을 쓴 W. Vogt 는 이번에는 「人間! 生存에의 挑戰」(註 2)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저작을 발표하여 세계제국이 특히 低開發國이 가공할 人口爆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全人類는 原子爆彈 이상의 불행한 운명과 아사로 물리게 될 것이라고 통론하였으며 그 가장 절망적인 事例는 印度라고 하였다.

이러한 系統의 著作은 근년 매우 많거니와(註 3) P. M. Hauser의 「人口豫想」(註 4)도 그 하나로써 世界人口의 금후의 增加豫測에서 이것에서 야기되는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諸問題의 重大性を 논하고 人口增加가 초래시키는 위험은 세계전체로서만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문제는 低開發國에 있으며 또한 第2次大戰後 出生率의 高水準을 아직 지속시키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도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다.

(註 1) W. Vogt, Road to Survival (1st. 1949). 6th impr., London 1951.

(註 2) W. Vogt, people! Challenge to Survival. New York 1960.

(註 3) ◎ C. Darwin, The Problems of world population, The Rede Lecture 1958—1958—Cambridge 1958.

◎ R. R. Francis, (ed), The Population Ahead. Minneapolis 1958.

◎ J. O. Hertzler, The Crisis in World Population. A sociological Examin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nder-developed Areas. Lincoln, Nebraska 1956.

◎ J. B. Orr, The White Man's Dilemma. Food and the Future. London 1953

(註 4) P. M. Hauser, Population Perspectives. New Brunewick, New Jersey 1963.

다른 한편 A. Sauvy(佛)도 「出産力과 生殘」(註 5)에서 前掲 W. Vogt의 「살아남는 길」에 의하여 대표되는 新 “말서스”主義의 悲觀論 및 이것을 도화선으로서 재연된 “말서스”主義와 反 “말서스”主義(맑스主義를 포함한)의 對立으로 시작하여 사실의 분석에 의하여 이 對立論爭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것으로서 出産力에 관한 오늘날의 世界問題(註 6)를 다룬 것이다. 여기에 Sauvy는 단순한 悲觀論者는 아니거니와 北西 “유럽”諸集團과는 달라서 人口增加의 上昇面으로 들어가지 않고 19세기를 통하여 出生率이 저하한 “프랑스”의 쓰라린 경험이 배후에 있는 만큼 그의 관찰은 多面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Gunther Wollny의 世界人口의 推移와 將來에 대하여 歷史的, 政治的 및 文明的으로 매우 광범한 각도에서 고찰을 가한 「將來는 다르다」(註 7)라는 저서에서는 人口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나 형태와 색조를 바꾼 O. Spengler(註 8)의 再版으로서 世界의 過剩人口를 論하고 특히 후진국에서 야기된 西洋의 合理化過程의 일환으로서의 醫藥革命이 단독으로 도입된 결과라는 것이며 이러한 人口爆發이 후진제국에 있어서의 社會革新의 原動力인 일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註 9)

일반적으로 近代的인 人口樣式의 출현을 人口革命이라고 하거니와 이것은 현대적인 經濟革命을 유인으로 야기된 것이며 가령 低開發國이 이것과 동일한 경과를 더듬어야 한다면 근대적인 人口樣式이 이러한 諸國에 시작되기에 앞서 우선 經濟革命이 즉 工業經濟로의 급전환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였으니 이러한 經濟革命을 생략하고 다만 겨우 醫藥革命의 수입을 매개로 하여 人口爆發의 새로운 단계를 마지한 것이다.

현단계의 人口現象을 어떻게 打開할 것인가. 전도에 대한 悲觀論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그렇다고 하여 人口爆發의 이 現象을 일거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급전환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歐美諸國이 더듬은 길과는 반대로 人口爆發이 구래의 社會構造의 변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 Wollny의 洞察이 이루어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人口는 역사와 결부되어 있으며 歷史에 波動이 있는 것과 같이 人口도 또한 파동을 경과하였거니와 그 波動은 北西 “유럽”을 先頭로 하여 널리 歐美諸國을 휩쓸면서 20世紀의 世界大

(註 5) A. Sauvy. Fertility and Survival Population Probleme from Malthus to Mao Tse-Tung original: De Malthus a Mao Tse-Toung, Paris. 1958 London 1961.

(註 6) A. Sauvy, *ibid.*, P. 17.

(註 7) G. Wollny, Die Zukunft ist Anders Boppard am Rhein 1962

(註 8) O. Spengler,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Umriss einer Morphologie der Weltgeschichte. 2Bde. 11--14. Aufl. U. 1-15. Aufl., Munchen 1920~1922

(註 9) G. Wollny, *ibid.*, S. 213

戰期에서 하나의 “에폭크”를 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계의 나머지 여러나라 특히 韓國을 포함한 아시아의 低開發國을 主體로 하여 史上에 또 하나의 큰 波動을 야기시키었다. 이것을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韓國에도 부과된 최대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三. 後進國의 人口問題

低開發國의 問題는 말할 나위도 없이 人口問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經濟, 社會, 文化의 各方面에 걸치어 있다. 특히 經濟面에 있어서는 世界經濟의 構造問題로서 19世紀的인 自由政策의 歸結의 問題로서 다시는 安定均衡을 지향하는 現代經濟學의 “아프로취”의 限界의 問題(註 1)로서 低開發國問題는 더욱 넓은 범위에 걸치어 經濟學者(註 2)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低開發國의 이러한 經濟問題가 人口問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人口問題가 이미 究明된 바와 같이 다만 人口 그 자체의 問題가 아니라 그것은 항상 經濟와의 사이 社會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며 人口가 歷史적으로 어떠한 人口樣式에 있는가 즉 出生率과 死亡率 및 結婚率의 結合의 어떠한 型을 취하였는가는 그 시대의 社會·經濟의 發展傾向과 결부되어 있으며 또한 人口成長의 “사이즈”와 速度와는 반드시 그 時代의 經濟·社會의 成長速度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人口問題가 이와 같이 어떠한 時代의 人口와 經濟내지 人口와 社會와 관련된 問題라고 한다면 低開發國의 人口問題는 결코 그 國家의 經濟問題와 무관계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 國家의 經濟問題 그 자체도 人口問題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韓國의 人口도 그러하지만 오늘날의 低開發國의 대부분이 高產出, 高死亡이라는 結合關係의 人口樣式(註 3)에서 벗어나서 高出產, 低死亡이라는 무한의 增殖을 內包하는 人口成長의 시기로 돌입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초래될 經濟的, 社會的 歸結을 둘러싸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상이한 성질의 問題가 야기될 것이다. 이것이 低開發國의 人口問題가 경제문제와 결부되어서 새로운 研究對象으로서 중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단순히 低開發國이라고 하여도 그중에서 “아프리카”나 南美와 같이 人口稀薄한 여러나라도 있으나 여기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人口가 이미 조밀한 東南“아시아”의 諸國, Warren S. Thompson의 표현을 빌린다면 高出生, 低死亡의 結付로 말미암은 人口成長이 가장 큰 時期로 돌입하여 한이없

(註 1) 南亮三郎著 人口理論 千倉最房 1966. P.P 164~165

(註 2)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1953.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 London 1957. 등이 있다.

(註 3) G. Mackenroth Bevolkerungslehre. Theorie, soziologie und statistik der Bevolkerung. Berlin-Heidelberg 1953. S. 110

(註 4) W. S. Thompson, Population and Peace in the Pacific (lat. 1946), 2nd imp., Chicago 1947.

는 “말서스”적 디렘마에 고민한다(註 4)고 하는 “아시아”의 低開發諸國이며 그중의 하나가 韓國인 것이다.

오늘날 소위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거의 공통적인 人口의 특징은 食糧의 부족, 낮은 生活水準, 工業의 未發達, 中産階級の 弱體, 높은 文盲率, 낮은 女性의 地位, 劣惡한 衛生保健 등의 社會的, 經濟的, 技術的 特徵과 그리고 이것과 밀접하게 결합된 높은 出生率 높은 死亡率(이것은 이미 低死亡率로 轉換하였다)과 底邊이 크게 벌어진 人口 “피라미”(兒童내지 低年齡層의 比率이 큰 人口) 등의 諸事實이다.

西歐諸國의 近代化는 社會構造의 見地에서 볼 때 封建制의 成熟과 絶對主義의 時代下에서 서서히 育成된 資本主義勢力의 革命的 擡頭에 의한 것이나 오늘날의 低開發國의 開發이 뒤떨어진 原因의 主要한 것은 이러한 開發의 發芽가 될 수 있는 적당한 “모멘트”를 결여한 社會構造의 型에 그 根源的 原因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전형적인 封建的 社會構造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 따라서 그 止揚에 의한 産業資本家階級の 擡頭의 可能性이 결여되었는데 기인되는 것이다.

低開發의 또 하나의 큰 原因으로 開發國에 의한 植民地的 支配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아시아”諸國은 西歐諸國 그리고 韓國은 日帝의 植民地的 支配에 의하여 低水準이면서도 住民相互의 生計을 보장하고 있었던 비교적 均等화된 傳統적인 社會構造가 解體되었거니와 그것이 近代적인 階級構造로 再編成되지 않았다는 데에 悲劇이 있었다. 植民國의 政治的 支配를 통하여서의 經濟的 收奪, 被植民國 内部에 있어서의 少數 “그루프”에의 權力과 經濟力의 集中 그리고 殘餘國民의 대부분의 潜在的 失業化가 内部에서 自立的으로 야기될 수 있는 近代적인 經濟發展을 매우 곤란하게 한 것이다.

오늘날 低開發國은 人口로 보아서 世界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거니와 일반적으로 低開發國이라고 하여도 土着의 傳統적인 社會構造나 生産力, 先進國과의 接觸의 時期, 接觸의 方法接觸하고 있던 先進國과의 힘의 關係 등에 의하여 오늘날 현저한 多樣性を 示顯하고 있는 것이다(註 5).

그런데 “아시아” 低開發地域이 經濟나 科學技術의 점으로 보아 후진적인 것은 西歐의 先進的 文明中心地에서 地理적으로 가장 원격하며 이러한 文明의 波及이 매우 지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또한 “유럽”인이 東方에 진출하였을 때에는 이미 高度文明(소위 近代文明이라는 것은 아니다)을 성숙시키고 있던 비교적 조밀한 土着人口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南“아프리카”, “오세아니아”, 南北 “아메리카”와는 크게 조건을

(註 5) イブラユスト 野田早苗譯 低開發諸國 白水社 1962. p. 70

달리하는 바이다. 또한 “아시아”는 西, 中央 “아프리카”와 같이 白人의 長期滞在에 견디지 못할만큼 氣候的 條件이 나쁜 곳도 아니다. 실제로 있어서 “아시아”의 대부분의 地域은 15세기 이래 西歐의 植民地로서 상당한 經濟的 利用價値를 제공하여 왔으나 白人의 定着植民地로서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註6).

低開發地域의 社會는 近代社會의 복잡성과는 또다른 의미에 있어서 다종다양하며 복잡다단한바 있으나 이것은 現地에 어느기간 체재하여 國民의 日常生活에 실제로 과고 들어가서 “미크로”적인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러한 觀察과 研究가 얼마나 時間이 걸리는 作業이며 迂回的인 것인가를 알 수 있거니와 低開發地域의 研究의 기초로서 그것에 노력을 더욱 경주할망정 경시한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하겠다(註7).

“아시아”의 모든 低開發地域이 그러하듯이 韓國의 社會는 韓國 나름으로 非近代的인 방법으로 그 국민은 환경에 適應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거니와 文化型의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적응 형태의 이해로 통하는 것이다. 低開發地域의 개발은 환경에 대한 土着的, 傳統的인 적응형태를 필연적으로 파괴하며 새로운 적응형태를 건설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장구한 歷史的인 경험과 전통적인 지혜로 성취된 적응형태를 일부러 파괴하여 공연히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思考方式도 한편에 있어서는 성립되지만 않을가 한다.

그러나 近代化에 대한 움직임은 오늘날 世界의 어느 변두리 地域에서도 歷史的 必然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世界의 低開發地域을 개발한다는 것은 人類라는 인식에 달하였으며 또한 世界諸地域의 現狀에 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어온 人類의 倫理的 課題이거니와 또한 開發諸國이 자기의 經濟的 安定과 번영을 그리고 國際的 勢力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조건으로도 되는 동시에 低開發國自體에 있어서의 政府나 指導者의 목하의 유일한 목표이기도 하며 또한 더욱 많은 국민의 관심과 욕구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는 이미 뒤로 물러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장애까지도 극복하고 推進되어야 하겠다(註8). 그러나 주로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의 低開發國에 있어서는 근자 數十年間 그리고 특히 戰後에 있어서 國民生活에 결정적인 不適應을 진행시키는 위험이 커지는 상태가 형성되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人口의 自然增加率의 上昇에 의한 過剩人口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戰前부터 서서히 그리고 戰後의 어떤 시기부터는 급속하게 개선되어 온 死亡率과 용이하게 低下의 징조를 나타내지 않는 高出生率과는 年間 3%를 上廻하는 높은 自然增加率을 몇 나라에 출현시키

(註 6) 南亮三郎 館 念共著 世界の人口問題 勁草書房 版 1963. pp. 232~246

(註 7) [同上] p. 247 前半

(註 8) [同上] p. 247 後半

있다. 人口過剩이 低開發의 本源的 原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현재 人口過剩에 허덕이는 諸國에 있어서는 人口過剩이 기왕의 적응형태를 파탄으로 이끄는 동시에 새로운 近代的 適應 형태의 形성을 저해하여서 低開發狀態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四. 韓國의 人口問題

1. 人口增加

韓國의 人口는 8.15 解放 前後 즉 1944年 南韓에만 15,879,110人이었으나 6.25 事變後의 1955년에는 2千萬을 突破하였으며 그 後 1959年 年末人口調査에서는 22,973,992人으로서 昨年度 1968年末의 人口數는 3,070萬以上을 突破하였다.

그러므로 韓國의 人口는 解放 前年부터 昨年末까지 24年間に 實數로는 1,482萬, 比率로는 거의 93%로서 年平均 60萬以上이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人口는 今年度 現在の 서울特別市 人口 4百50餘萬의 3倍 以上이며 또 年平均 增加人口는 同 大邱市 人口에 거의 該當되는 것이다.

人口密度는 和蘭, 臺灣, 韓國 그리고 日本, 西獨의 차례로 높다고 하며 UN統計(1967)에 있어서 和蘭이 346人, 中國이 305人, 그리고 韓國이 300人, 日本이 254人이다. 그런데 이것은 總面積에 對한 人口 密度이며 耕地面積에 대한 人口密度를 UN 人口年鑑에 의하여 計算한다면 日本에서는 1,528人, 中國에서는 1,220人이나 韓國에서는 실로 瑞西의 1,216人의 다음가는 1,158人이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耕地面積과의 關係에서 본다면 韓國의 人口密度는 可恐할 程度로 높은 것이다.

韓國의 人口密度는 이미 이와 같거니와 그 後의 人口도 계속 增加하고 있으므로 耕地面積에 對한 人口 密度는 오늘날 約 1,300人이라는 경이적인 높이에 달하고 있다. 和蘭이나 英國은 아직도 海外에 屬領을 保有하고 있는데 대하여 韓國은 이 大人口가 10萬平方km도 못 되는 韓半島 절반에 密集하고 있으니 韓國의 人口야말로 참으로 狹小한 國土에 창일되고 있는 人口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以上에서 말한 바 1,482餘萬의 增加人口中 社會增加에 의한 것은 4百萬餘으로서 이것은 解放後 北韓避難民과 日本 및 東南 “아시아”地域으로부터 日帝의 徵用, 徵兵 및 學兵, 其他 해외교포의 歸還을 合한 3百萬가량의 大量, 移入人口에 대하여 國內로부터 退去한 人口(主로 日本人)는 50餘萬에 不過하였으며 이것은 본래 韓國人口에서 除外되었기 때문에 考慮하지 않은 것이다. 또 6.25 事變中 南下한 北韓동포 약 150百萬에 대하여 남치 및 소위 義勇軍 등

약 50萬을 加減한다면 前述한 3百萬과 後者의 1百萬을 合하여 總 4百萬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6.25事變을 前後한 增加人口의 거의 折半은 社會增加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이 解放後의 人口增加에 있어서 얼마나 큰 影響을 끼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社會增加는 一時的 現象으로서 日本, 滿洲 等地로부터의 歸還동포는 아직도 多少 殘留하고 있기는 하나 將來 이와같은 큰 社會增加는 南北統一에 있어서나 若干 볼 수 있을까 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歸還人口中 男子의 차지하는 比率이 顯著히 크며 또한 生産年齡階級에 屬하는 者가 거의 大多數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여 그들에게 就業의 機會를 賦與할 것인가가 큰 問題였던 것이다.

1,482萬餘의 增加人口中 4百萬餘가 社會增加이므로 殘餘의 1,082萬은 死亡數에 대한 出生數의 超過 즉 自然增加에 의한 것이다. 이 自然增加數에 대하여 그 出生數를 보면 6.25事變後 前者는 大略 1千萬 以上이며 後者는 大략 5百萬餘라는 큰 數字인데 이것은 6.25動亂中의 人命喪失(約 百萬)이 많다는 데에 基因하는 것이다.

人 口 統 計

1968年

(總人口調查一覽) 經濟企劃院

| 調査年度 | 調査時点 | 面積(km) | 人口數 | 備 考 |
|------|---------|-----------|------------|-------------|
| 1944 | 5月 1日 | 94,229.18 | 15,879,110 | 總 督 府 |
| 1945 | | 94,229.18 | | |
| 1945 | | " " | 19,369,270 | 美 軍 政 廳 |
| 1947 | | " " | 19,886,234 | " |
| 1948 | | " " | 20,027,393 | " |
| 1949 | 5月 1日 | " " | 20,188,641 | 總 人 口 調 查 |
| 1950 | | " " | | |
| 1951 | | " " | | |
| 1952 | 3月 1日 | " " | 20,526,705 | 內 務 部 推 定 |
| 1953 | 12月 31日 | " " | 21,541,248 | 公 報 部 推 定 |
| 1954 | | " " | | |
| 1955 | 9月 1日 | 93,431.03 | 21,521,374 | 總 人 口 調 查 |
| 1955 | 12月 31日 | " " | 20,202,256 | 年 末 人 口 調 查 |
| 1956 | " " | " " | 20,724,062 | " |
| 1957 | 12月 1日 | 98,431.03 | 21,321,136 | 年 末 人 口 調 查 |

| 調査年度 | 調査時点 | 面積(km) | 人口數 | 備 考 |
|------|---------|-----------|------------|-------------|
| 1958 | " " | " " | 21,909,742 | " |
| 1959 | " " | " " | 22,973,992 | " |
| 1960 | 12月 1日 | " " | 24,989,241 | 國 勢 調 査 |
| 1961 | 12月 31日 | " " | 24,925,816 | 年 末 人 口 調 査 |
| 1962 | " " | " " | 26,277,635 | " |
| 1963 | " " | " " | 27,184 | " |
| 1964 | 10月 1日 | 98,490.82 | 28,281,096 | " |
| 1965 | " " | 98,447.48 | 28,647,176 | 常 住 人 口 調 査 |
| 1966 | " " | " " | 29,207,856 | 人 口 센 서 스 |
| 1967 | 12月 1日 | " " | 30,067 | 年 末 人 口 調 査 |
| 1968 | " " | 98,438.32 | 30,747 | " |
| 1969 | " " | " " | 31,534 | 推 定 |
| 1970 | " " | " " | 32,327 | " |

資 料

- ◎ 韓國銀行 調査部；經濟統計年報 1969
- ◎ 內務部統計局；簡易 總人口調査報告 1955
- ◎ 內務部統計局；人口統計年鑑 1959
- ◎ 農業銀行調査部；農業年鑑 1968
- ◎ 朝日新聞社；朝日年鑑 1968

그런데 이 自然增加는 各年度에 있어서 平均的으로 發生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1944年以後의 出生率, 死亡率 및 自然增加率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激 動 期 의 人 口 動 態

內 務 部 統 計 局 (1944~1949)
保 社 部 標 本 抽 出 調 査 (1950~1955)

| 年 度 | 人 口 數 | 出 生 | | 死 亡 | | 人 口 自 然 增 加 | |
|------|------------|---------|------|--------|------|-------------|------|
| | | 實 數 | % | 實 數 | % | 實 數 | % |
| 1944 | 15,839,110 | | | | | | |
| 1945 | | | | | | | |
| 1946 | 19,369,270 | 234,570 | 1.61 | 73,453 | 1.19 | 61,117 | 0.42 |

| 年 度 | 人 口 數 | 出 生 | | 死 亡 | | 人口自然增加 | |
|------|------------|---------|------|---------|------|---------|------|
| | | 實 數 | % | 實 數 | % | 實 數 | % |
| 1947 | 19,886,234 | 483,032 | 2.20 | 178,506 | 0.90 | 259,526 | 1.31 |
| 1948 | 20,027,393 | 373,226 | 1.86 | 186,794 | 0.93 | 181,432 | 0.93 |
| 1949 | 20,188,641 | | | | | | |
| 1950 | 20,512,899 | 742,567 | 3.62 | 545,643 | 2.66 | 196,924 | 0.96 |
| 1951 | 20,670,848 | 700,742 | 3.39 | 541,576 | 2.62 | 159,166 | 0.77 |
| 1952 | 21,144,210 | 940,917 | 4.45 | 456,715 | 2.16 | 484,202 | 2.29 |
| 1953 | 21,440,229 | 709,671 | 3.31 | 409,508 | 1.91 | 300,163 | 1.40 |
| 1954 | 21,796,137 | 817,965 | 3.75 | 456,825 | 2.10 | 361,140 | 1.60 |
| 1955 | 22,123,097 | 787,581 | 3.50 | 455,735 | 2.06 | 331,846 | 1.50 |

이 表에서 보면 1946 年의 出生率은 1.6%로서 韓國으로서는 이제까지 經驗하지 못하던 低率을 보이였다. 이것은 南北韓의 全體의인 것이기는 하나 同年 前 全國 5 個年 平均出生率에 比한다면 그 低率에 놀래지 않을 수 없으며 日本의 同年間 平均과 比較하더라도 매우 낮은 것이다.

日本以上으로 多産的이라고 하던 韓民族도 日帝 敗戰의 犠牲이 甚大하던 그 混亂期에 있어서 出生率의 激減을 보인 것은 必然之勢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同年의 死亡率은 1.19%로서 前前年の 2.08 보다 低率인 것 같으나 實은 南韓단의 莫大한 社會增加를 包含시킨 全人口에 對한 比率이므로 統計上으로는 낮은 것이나 翌年 및 翌翌年 平均死亡率 0.915 와 比較

南北의 主要人口移動 (1945—1948)

| 年 次 | 區 分 | 人 口 | 年 次 | 區 分 | 人 口 |
|-----------|-----------|-----------|-----------|-----------|-----------|
| 1945-1946 | 越 南 同 胞 | 185,208 | | 總 計 | 2,994,462 |
| 1947 | | 163,233 | 1945-1948 | 日本人出國(軍人) | 179,920 |
| 1948 | | 116,107 | " | " (市民) | 709,064 |
| | 小 計 | 464,548 | " | 中國人 其他出國 | 2,325 |
| 1945-1948 | 歸 還 同 胞 | 2,189,642 | | 小 計 | 891,309 |
| " | 日 本 人 入 國 | 340,272 | | 純 增 加 | 2,103,153 |

朝鮮銀行調查部 經濟年鑑 1649 年版에서 作成, 越南同胞數는 收容所를 거쳐 南下한 同胞에 限함

한다면 약간 高率로서 이것도 上述한 事情에 基因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의 死亡率의 最高 記錄은 動亂으로 人命損失이 多大하였다는 데에 原因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解放後 16年間に 있어서 解放을 前後한 出生率의 激減과 死亡率의 增大 및 6.25 動亂中の 死亡率의 激增은 各 該當年度의 自然增加率을 低下시키어 舊韓末以來 이제까지 經驗하지 못하던 異變이 人口動態上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47年 및 그 翌年の 出生率은 多少 上昇을 보이어 2.20% 및 1.86로 되었으나 아직 매우 낮은 것이다. 解放後의 不安定한 社會狀態下에 있어서 出生意慾이 극히 抑制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死亡率의 改善은 相當히 顯著하여 戰前水準 以上으로 向上되어서 0.90%, 그 翌년도 0.93%로 되었다. 따라서 自然增加率도 前年の 0.42%에서 1.31%, 그 翌年은 0.93%를 示顯하였으나 종래의 그것에 比한다면 아직도 매우 低率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6.25 動亂으로 인한 急激한 死亡率의 上昇이 그 후 약간식의 低下를 보이면서 回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0年에 이르러 出生率은 急激히 上昇하여 3.62%에 達하였고 이것이 動亂으로 약간 低下한기는 하였으나 그 후 5個年の 平均出生率은 3.7%를 示顯하였으며 今年末에도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人口項目에서 推計한 出生兒數가 100萬을 超過할 것이니 이것은 比率로 보아서 3.4% 以上이라는 高率인 것이다. 戰後의 出生率이 一時的으로 上昇한다는 것은 第一次大戰 結果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니 出生率은 戰時中에는 減少하였으나 戰後 일시적으로 상당히 높은 上昇을 示顯하였던 것이다.

第二次大戰의 結果에 대하여도 同一한 現象을 볼 수 있으니 諸交戰國은 戰時에 있어서 韓國과 같은 出生率의 激減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戰後에 있어서는 出生率의 현저한 上昇을 나타내었으며 그 出生率은 2% 이상에 달하였다.

戰後의 出生率이 一時的으로 上昇한다는 것은 하나의 社會法則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韓國의 出生率도 결코 그 例外는 아니다. 戰後의 經濟生活이 아직 困窮한 狀態로부터 完全回復되지는 않았으나 社會生活 全般에 걸쳐서 戰時中과 같은 焦燥와 緊迫과의 感情으로부터 겨우 解放되는 것과 동시에 徵用 및 學兵 등의 家庭으로의 復歸, 生産力있는 在外교포의 歸還 또는 結婚流行症 등으로 인하여 出生率은 顯著히 높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死亡率은 1944年에는 2.08%라는 從前에 없었던 高率이었다. 日帝의 敗戰直前の 混亂期에 있어서 社會衛生, 公衆保健施設의 活動이 마비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看過할 수 없으나 과격한 軍需生産에 따르는 重勞動 및 徵發勞動의 犧牲으로 말미암아 高率의 死亡率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여기에 또 1950年에 勃發된 6.25 動亂은 종전에 보지 못하

던 高率의 死亡率 2.66%를 그 翌年은 2.62%를 계속 示顯하였으나 이것도 또한 격화된 空襲 기타에 의한 死傷 특히 諸都市에 있어서의 多數死傷者의 續出 및 京鄕 各地의 徵發, 납치 학살 등에 의하여 재차 惹起된 것이다. 그러나 1950年부터는 점차 低下하기 시작하여 數年來의 死亡率은 意外의 低率로서 韓國에서는 高率의 出生率과 더불어 이제까지 못보던 現象을 나타낸 것이다.

死亡率이 戰時中에 上昇하고 戰後에 低下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바 그 반대의 경우로서 自明하거나 第二次大戰에 있어서 主要交戰國의 死亡率은 戰時에도 그다지 上昇되지는 않았으며 戰後의 低下도 매우 僅少하였다.

이것은 그 國家의 公衆衛生施設이 그 機能을 충분히 發揮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戰後의 死亡率이 특히 減退의 傾向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死亡率이 이미 最低의 限界點에 接近되어 있어서 그 以下로는 引下시키기가 困難하다는 事情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人口 關係에 있어서의 이러한 傾向은 且置하고라도 韓國의 死亡率은 이미 말한바 解放 直前 및 事變 中에서 현저한 上昇을 보이었으나 戰後 및 더우기 休戰 數年後에는 驚異的인 速度로서 低下한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많은 理由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페니실린”과 같은 新藥을 使用함으로써 말미암아 또한 解放後의 混亂期에 있으면서도 美國等의 援助로 公衆保健施設의 擴大 強化에 依하여 死亡對策이 豫期以上の 實績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要컨대 韓國에 있어서의 人口의 急激한 自然增加는 休戰後 出生率의 激增과 死亡率의 激減에 의하여 惹起된 것이다.

2. 將來人口

韓國의 人口는 오늘날 이미 3,000萬을 突破하고 있다. 人口의 社會增加는 今後 거의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自然增加는 1964年에서 1968년까지의 年平均 70萬 가량의 趨勢로 보아서 將來의 人口가 어떻게 發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人口의 重壓에 苦悶하고 있는 韓國의 現事態로서 특히 關心事가 아니될 수 없는 것이다.

將來의 人口를 推計한다는 것은 人口現象이 극히 不安定한 時點에 있어서는 매우 困難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推計는 어디까지나 推計이며 推計된 人口는 將來의 實際人口와 一致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人口現象이 이 假定과 같이 推移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將來의 人口를 推計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可能的 條件을 豫想하여 假定을 設定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人口問題研究所가 推計한 將來人口(1965~1985)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同研究所

에 의하면 현재 基礎資料가 될 수 있는 것은 1960年度의 “센서스”資料와 1965年의 年末常住 人口調查資料이며 1960年의 “센서스”資料는 年齡調查의 基準과 勞動力의 參加年齡(13세) 등 에 있어서 其他의 “센서스”와 다른바 있으나 1965年의 年末常住人口와 비교하는 데는 큰 곤란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將來人口를 推計하기 전에 먼저 1960년도의 “센서스”를 修正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多少의 差는 있으나 어떠한 “센서스”이건 어느 정도의 漏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推定한 1960年의 人口는 25,619,000명이며 同年의 “센서스”人口보다 약 63만명이 많거니와 1965年의 年末常住人口와 1960年의 修正人口에서 推計된 1965年의 推定人口를 비교하여 보면 5세이상의 人口에서 年末常住人口가 약 6만이 더 많다. 1960年의 推計人口는 남자 12,316,000명, 여자 12,300,000명이며 年末常住人口는 남자 12,300,000명 여자 12,377,000명이다.

1960年의 수정된 基本人口의 5년후 人口는 $P_n = P_0(1+r)^n$ 로 계산되며 이 경우 r을 2.75%로 보면 1965年 人口는 29,284천명이 된다. 1960~1965年의 年平均 出生率을 3.73%로 보면 年間 出生兒數는 中央人口 27,445천명 \times 0.0373이고 5년간의 總출생아수는 5,118천명이 된다. 性比 105를 적용하고 生命表 West 水準 17을 적용하면($5L_0/L_0$, 남자 0.9052, 여자 0.9192) 0-4세人口는 남자 2,394천명, 여자 2,273천명이 각각 산출된다. 그리고 1985년까지의 人口는 다음과 같은 出生死亡의 豫測에서 추계되었으며 각 년도별 인구는 1965. 70. 75. 80. 85년의 추계인구를 먼저 계산하고 補間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다.

出生死亡의 豫測

單位 1,000 分率

| 年 度 | 出 生 率 | 死 亡 率 | 增 加 率 |
|-----------|-------|-------|-------|
| 1960 ~ 65 | 37.3 | 9.8 | 27.5 |
| 1965 ~ 70 | 31.6 | 8.4 | 23.2 |
| 1970 ~ 75 | 26.2 | 7.0 | 19.2 |
| 1975 ~ 80 | 21.4 | 6.0 | 15.4 |
| 1980 ~ 85 | 19.0 | 5.6 | 13.4 |

人口問題研究所 推算

人口推計 (1966~1986.)

(單位: 1,000 名)

(人口問題研究所提供)

| 年齡 | 1 9 6 6 | | 1 9 7 1 | | 1 9 7 6 | | 1 9 8 1 | | 1 9 8 6 | | | | | | |
|-------|---------|--------|---------|--------|---------|--------|---------|--------|---------|--------|--------|--------|--------|--------|--------|
| | 總數 | 男 | 女 | 總數 | 男 | 女 | 總數 | 男 | 女 | 總數 | | | | | |
| | | | | | | | | | | | | | | | |
| 0-4 | 4,653 | 2,384 | 2,269 | 4,531 | 2,308 | 2,223 | 4,172 | 2,126 | 2,046 | 3,789 | 1,933 | 1,856 | 3,730 | 1,906 | 1,824 |
| 5-9 | 4,630 | 2,381 | 2,249 | 4,565 | 2,336 | 2,229 | 4,487 | 2,275 | 2,212 | 4,200 | 2,105 | 2,095 | 3,765 | 1,919 | 1,846 |
| 10-14 | 3,782 | 1,948 | 1,834 | 4,600 | 2,365 | 2,235 | 4,543 | 2,323 | 2,220 | 4,471 | 2,266 | 1,205 | 4,189 | 2,098 | 2,091 |
| 15-19 | 2,998 | 1,545 | 1,453 | 3,755 | 1,933 | 1,822 | 4,574 | 2,350 | 2,224 | 4,522 | 2,311 | 2,211 | 4,456 | 2,257 | 2,199 |
| 20-24 | 2,449 | 1,260 | 1,189 | 2,966 | 1,527 | 1,439 | 3,722 | 1,914 | 1,808 | 4,544 | 2,331 | 2,213 | 4,499 | 2,296 | 2,203 |
| 25-29 | 2,179 | 1,113 | 1,066 | 2,397 | 1,242 | 1,155 | 2,934 | 1,509 | 1,425 | 3,692 | 1,896 | 1,796 | 4,515 | 2,313 | 2,202 |
| 30-34 | 1,860 | 896 | 964 | 2,146 | 1,095 | 1,051 | 2,389 | 1,227 | 1,162 | 2,907 | 1,494 | 1,413 | 3,666 | 1,881 | 1,785 |
| 35-39 | 1,519 | 715 | 804 | 1,829 | 880 | 949 | 2,116 | 1,079 | 1,087 | 2,361 | 1,211 | 1,150 | 2,881 | 1,479 | 1,402 |
| 40-44 | 1,378 | 667 | 711 | 1,486 | 698 | 788 | 1,796 | 863 | 933 | 2,085 | 1,061 | 1,024 | 2,332 | 1,194 | 1,138 |
| 45-49 | 1,142 | 571 | 571 | 1,338 | 645 | 693 | 1,448 | 678 | 770 | 1,758 | 842 | 916 | 2,047 | 1,039 | 1,008 |
| 50-54 | 980 | 487 | 493 | 1,096 | 546 | 550 | 1,296 | 625 | 671 | 1,401 | 652 | 749 | 1,708 | 814 | 894 |
| 55-59 | 797 | 396 | 401 | 921 | 453 | 468 | 1,056 | 541 | 515 | 1,232 | 588 | 644 | 1,339 | 617 | 722 |
| 60-64 | 589 | 281 | 317 | 727 | 355 | 372 | 844 | 408 | 436 | 957 | 464 | 493 | 1,145 | 538 | 607 |
| 65-69 | 466 | 206 | 260 | 518 | 238 | 280 | 634 | 303 | 331 | 744 | 352 | 392 | 852 | 404 | 448 |
| 70-74 | 310 | 128 | 182 | 372 | 160 | 212 | 417 | 186 | 231 | 517 | 240 | 277 | 489 | 282 | 207 |
| 75+ | 272 | 103 | 169 | 343 | 129 | 214 | 425 | 164 | 261 | 506 | 202 | 304 | 925 | 261 | 364 |
| 總數 | 30,013 | 15,081 | 14,932 | 33,590 | 16,910 | 16,680 | 36,853 | 18,571 | 10,282 | 39,686 | 19,948 | 19,738 | 42,238 | 21,298 | 20,940 |

그런데 韓國의 人口와 그 增加는 그 自體로서는 특별한 意味는 없는 것이며 한 假定만을 充足시킨다면 영구히 增加하여도 어떠한 問題도 惹起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假定은 매우 重大한 것으로서 韓國의 資源이 國民各自에게 生活的 基礎的 必需品을 供給하며 상당한 生活水準을 保障할 수 있는 程度로 充足하다면 問題는 없거니와 韓國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人口의 大多數와 같이 最低의 生活을 營爲하는데 必要한 必需品에도 欠乏되고 있으며 近代科學과 技術的 熟練의 多大한 進歩와 導入에도 불구하고 食糧品의 總生産은 人口의 增加와는 比例되지도 않으므로 現實的으로 每年 平均 3百萬石以上の 糧穀을 導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必需品에 이르러서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또 天然資源에 대하여도 勿論 人口增加와 同一한 比率로 開發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總人口의 增加 및 그 構成

|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總 人 口 | 29,412 | 32,647 | 35,630 | 38,333 | 40,664 |
| 0~14 | 12,743 | 13,228 | 12,715 | 12,043 | 11,572 |
| 15~60 | 15,052 | 17,497 | 20,649 | 23,637 | 25,956 |
| 60+ | 1,617 | 1,922 | 2,256 | 2,653 | 3,136 |
| 扶 養 比 % | 95.4 | 86.6 | 72.5 | 62.2 | 56.7 |
| 社會保障對象人口% | 5.5 | 5.9 | 6.3 | 6.9 | 7.7 |

(RP 政策研究室算出)

그러므로 人口의 收容力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經濟開發計劃을 強力하게 推進시킨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극히 重要한 것이나 이미 말한바 將來의 人口가 推算된 바와 같이 增加하

扶 養 比 (1960~1986)

| | 1960 | 1966 | 1971 | 1976 | 1981 | 1986 |
|----------------|-------|-------|-------|-------|-------|-------|
| 14歲以下 人口比率 | 44.12 | 43.41 | 41.07 | 35.83 | 30.13 | 27.89 |
| 15~59歲 人口比率 | 50.58 | 51.11 | 53.10 | 57.88 | 62.98 | 64.75 |
| 60歲以上 人口比率 | 5.30 | 5.48 | 5.83 | 6.29 | 6.89 | 7.36 |
| 扶 養 比 % | 49.42 | 48.89 | 46.90 | 42.12 | 37.02 | 35.25 |

(人口問題研究所算出)

여 나간다면 第3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實行에 옮기어져서 豫定대로 진척된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 國家에서는 生活水準을 一般程度로 上昇시키기는 매우 困難한 것이며 또한 移民에 대하여서도 過剩人口의 緩和를 期待할 수 있는 程度로 大量의 送出이 困難한 限 國民生活을 安定시키기 위하여서는 높은 人口增加率을 抑制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이다.

五. 結 語

韓國의 人口는 무엇보다도 종전의 多産多死에서 多産少死로 옮기어간 低死亡率에 起因하는 激增人口이거니와 이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北西 “유럽”의 高度發展國이 경험한 人口發展過程 즉 急激, 緩慢, 停滯, 減少라는 4 段階의 한 過程으로서 近代化 내지 産業化의 發展段階들 의

市郡別 人口構成

單位：千名

| 區 分 | 1949年 5月 1日 | 1955年 9月 1日 | 1960年 12月 1日 | 1967年 12月 31日 |
|---------|-------------------|-------------------|-------------------|------------------|
| 市 部 人 口 | 3,474 (17.2%) | 5,281 (24.5%) | 6,997 (28.0%) | 1,052 (35.0%) |
| 都 部 人 口 | 16,715 (82.8%) | 16,245 (75.5%) | 17,992 (72.0%) | 1,954 (65.9%) |
| 計 | 10,201 | 10,767 | 12,544 | |
| 男 | 9,988 | 10,759 | 12,445 | |
| 女 | 20,186 | 21,526 | 24,989 | 30,060 |

資料：經濟企劃院

人口增加率과 經濟活動人口의 推移

(單位：千名)

| 年 齡 | 總 人 口 (A) | 年間人口 增 加 率 (%) | 14 歲 以 上 人 口 經 (B) | A — B (%) | 經 濟 活 動 人 (C) | 經 濟 活 動 參 加 率 (C/B%) |
|------|--------------|----------------------|--------------------------|--------------------|------------------|----------------------------|
| 1963 | 27,184 | 2.84 | 15,684 | 57.70 | 8,652 | 55.2 |
| 1964 | 27,958 | 2.95 | 16,348 | 58.47 | 8,893 | 54.4 |
| 1965 | 28,670 | 2.55 | 16,591 | 57.87 | 9,199 | 55.4 |
| 1966 | 29,208 | 1.88 | 18,840 | 57.66 | 9,325 | 55.4 |
| 1967 | 30,067 | 1.29 | 17,169 | 57.10 | 9,504 | 55.4 |

資料：韓國銀行 1969 經濟統計年報 및 經濟企劃院資料

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은 人口의 密集度에 있어서 地域적으로 顯著한 差가 있다는데 주의하여야 하겠다. 특히 都市人口에 있어서의 集中의 時期와 速度는 資本主義的 發展 내지 工業化의 高度化의 時期와 速度를 상징하거나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韓國의 人口動態는 앞서 말한바 低死亡率과 아울러 都市人口의 急激한 膨脹은 産業革命을 전형적으로 수반하지 않은 農村經濟의 파탄으로 造成된 農民離散과 단지 그것만으로 輸入된 醫藥革命의 結果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하겠다(註 1).

다음으로 韓國에 있어서는 人力(Manpower)의 人口要因的 側面이 큰 問題로 되어 있다. 이것은 一見 奇異하게 여길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에 관하여 UN에서는 成人人口의 相對的缺乏, 健康要因 및 熟練, 適性, 刺戟의 諸原因으로 區分하고 經濟發展을 저해하는 人力不足이 低開發諸國에 나타나며 人口上 不利한 年齡構成에 의하여 가중되거나와 그 根本原因은 더욱 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주로 急速하게 變化하는 生活條件에 國民이 스스로 適應하지 못한다는데 기인하며 設備와 方法의 대담한 革新에는 文化와 技術知識 및 健康의 領域에 있어

勞動力 및 就業狀況

單位(人口千名)
比率(%)

| 年 度 | 14세以上 人 口 | 勞動力人口 | 勞動活動 參加 率 | 就 業 者 | 就 業 率 | 失 業 者 | 失 業 率 |
|------|--------------|-------|--------------|-------|-------|-------|-------|
| 1963 | 15,684 | 8,652 | 55.2 | 7,947 | 91.9 | 705 | 8.1 |
| 1964 | 16,348 | 8,894 | 54.4 | 8,211 | 92.3 | 683 | 7.7 |
| 1965 | 16,591 | 9,199 | 55.4 | 8,522 | 92.6 | 677 | 7.4 |
| 1966 | 16,840 | 9,326 | 55.4 | 8,659 | 92.9 | 666 | 7.1 |
| 1967 | 17,169 | 9,504 | 55.4 | 8,914 | 93.8 | 590 | 6.2 |
| | | 農 | | 家 | | | |
| 1963 | 9,030 | 5,280 | 58.5 | 5,129 | 96.9 | 151 | 3.1 |
| 1964 | 9,370 | 5,442 | 58.1 | 5,256 | 96.6 | 187 | 3.4 |
| 1965 | 9,353 | 5,437 | 58.1 | 5,270 | 96.9 | 168 | 3.1 |
| 1966 | 9,226 | 5,427 | 58.6 | 5,259 | 96.9 | 168 | 3.1 |
| 1967 | 9,057 | 5,315 | 58.7 | 5,191 | 97.7 | 124 | 2.3 |

(註 1) 南亮三郎編 アジアの人口と經濟發展 アジア經濟研究所版 1962刊 第7章 アジアの工業と 都市化 參照

(註 2) United Nations (ed)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ow York 1969. p. 267

서의 人間水準에도 同一한 努力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註2).

제 3의 특징은 韓國에 있어서의 人口와 土地比率 특히 農業에 있어서의 人口密度(農業密度)의 問題이다. FOA의 集計에 의하면 韓國을 포함한 “아시아”에 있어서 人口·土地比率는 世界平均(蘇聯을 제외) 1平方K當 43人的 3배반 147人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農業에 있어서의 人口·土地比率는 바꾸어 말하면 農業勞動의 生産性的 問題로 귀착되거니와 이것은 人口密度가 높을수록 저하된다는 逆比例關係 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日本의 경우와 같은 例外的事例도 있다.

非 農 家

| 年 度 | 14세以上人口 | 勞 動 力 口 | 勞動活動參加者 | 就 業 者 | 就 業 率 | 失 業 者 | 失 業 率 |
|------|---------|---------|---------|-------|-------|-------|-------|
| 1963 | 6,654 | 3,372 | 60.7 | 2,818 | 83.6 | 554 | 16.4 |
| 1964 | 6,978 | 3,452 | 49.5 | 2,995 | 86.6 | 496 | 14.4 |
| 1965 | 7,238 | 3,762 | 51.9 | 3,252 | 86.4 | 509 | 17.4 |
| 1966 | 7,574 | 3,899 | 51.5 | 3,400 | 87.2 | 498 | 12.8 |
| 1967 | 8,112 | 4,189 | 51.6 | 3,723 | 88.9 | 466 | 11.1 |

資料：經濟企劃院

따라서 農業密度的 削減이 그대로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農業生産性を 進歩로 지향시키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農業人口가 都市로 移住함으로써 감소된 工業諸國에 있어서는 農業의 技術的改善과 人口當生産額의 증가와 아울러 이루어졌거니와 이러한 관점에서 密度的 감소가 반드시 技術的 進歩와 生産性 增大를 초래하거나 또는 촉진시키었다고는 結論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설사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다른 諸原因에 기인될 수 있는 것이며 약간의 경우에는 移住 또는 死亡超의 어느 것에 의하던간에 密度的 감소가 1人當 農業生産額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註3). 여기에 韓國의 工業과 都市問題는 人口問題와 결부된 農業密度와 生産性과의 關係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제 4의 특징은 人口壓迫과 관련된 失業 및 不完全雇傭(潛在失業 또는 僞裝失業)의 문제이다. 人口조밀한 韓國에 있어서의 土地不足은 중사하는 勞動者 1人當의 小生産額을 걸과시킬 뿐 아니라 農業勞動者의 失業 또는 不完全雇傭까지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事實上的 失業(完全失業)은 土地가 없는 農業賃金勞動者의 大集團이 存在하는 國家에 있어서만 重要한 것 같으며 農業이 家族勞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地域에서는 노동공급의 過剩은 오히려

大規模的인 “파트타임”이나 季節的 雇傭 내지 農業收穫에는 그다지 貢獻되지 않은 作業에서의 利用으로 反映되는 것 같다.

韓國의 事情도 이것과 비슷하거나 다만 農村協同體의 勞動과 韓國에 特有한 「머슴」의 存在가 약간 다를 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不完全雇傭의 統計的 測定을 하기는 매우 困難한 것이나 印度에 관한 K. Davis의 例로 보아서 韓國農業의 近代化를 이룩하려면 그 農業 人口는 數百萬을 除去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을 위시한 低開發國의 낮은 生活水準에 있어서의 人口壓迫은 사소한 經濟的 混亂의 소크로서도 破局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人口壓迫이 다시 금후의 거대한 人口成長力에 의하여 강화된다면 조만간 政治的 및 經濟的 發展에 대한 심각한 障礙가 될 것이다. 人口壓迫을 높이는 基本적 原因은 모든 人口조밀한 舊植民地에 있어서 本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近代的인 政府, 보다 能率的인 生産 및 初步的인 衛生이 도래하기 以前에는 死亡率은 매우 높았거나 그 人口는 다소간 不충분한 經濟的 技術로서 가능하게 되는 密度로 배런스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會社가 存續하려면 高出生率을 保有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社會的 構造는 高出産力을 導出하기도 하는 것이다.

Notestein은 人口壓迫의 根本原因을 低生活水準, 高死亡率의 조건하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되는 高出産力으로 보며 더우기 이러한 高出産力의 必然性은 後進社會의 制度, 習慣, 宗教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한 말로 하여 社會構造의 根本問題에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註 4).

따라서 人口壓迫에서 벗어나는 길로서의 出産力의 “콘트롤”도 결국은 避妊의 보급 등이 아니라 高出生力의 조건이 되며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後進諸國의 독특한 “쏘살, 셋팅”(社會裝置)의 改變의 可能性 여하에 의하여 左右된다는 것이다(註 5). 이것은 다름아니라 韓國人口의 問題가 社會構造, 文化構造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人口조밀한 低開發國에서는 Zeibenstein이 말하는 두가지型의 潛在失業이 중복되어 발생하거나(註 6) 이것은 不熟練勞動의 광범한 失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失業 또는 潛在失業은 그들로 하여금 就業에 착수시키는 協同的 生産諸要因(co-operative factors of production)이 부족한 동시에 다른 補完的 生産諸要因의 공급도 不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不熟練勞動의 非自發的인 나태의 主要原因이 될 수 있거나와 失業은 일반으

(註 3) United Nations, *ibid.*, p. 271

(註 4) F. W. Notestein, “Problems of Policy in Relation to Areas of Heavy Population Pressure” (1944), *Population Theory and Policy*, ed by Spengler and Duncan, Glencoe (Illinois) 1956, p. 475.

(註 5) Notestein, *ibid.*, p. 478

(註 6) H. Zeibenstein,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A Study in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London 1957 . 59~60

로 土地에 대한 過剩人口(surplus population on the land)의 형태를 취하고 나타나며 따라서 農村人口의 큰 비율이 거의 遊休狀態에 있는 것이다. 耕作者와 그 家族은 그들을 “풀”로 就業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은 土地 또는 불충분한 設備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農業以外에 雇傭을 확보한다는 방도에는 명백한 제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註7).

農家人口·戶數 및 耕地面積

| 區 分 | 農家戶數 | 農家人口 | 農地面積 | 戶當人口 | 戶 當 耗地面積 | 1 人 當 耗地面積 |
|------|-------|--------|-------|------|-------------|---------------|
| | 千戶 | 千人 | 千町步 | 人 | 段步 | 段步 |
| 1951 | 2,183 | 12,778 | 1,958 | 5.85 | 8.97 | 1.5 |
| 1955 | 2,218 | 13,299 | 2,011 | 5.99 | 9.07 | 1.5 |
| 1960 | 2,349 | 14,559 | 2,041 | 6.20 | 8.69 | 1.4 |
| 1965 | 2,506 | 15,811 | 2,275 | 6.31 | 9.07 | 1.4 |
| 1966 | 2,540 | 15,780 | 2,132 | 6.21 | 9.10 | 1.5 |
| 1967 | 2,587 | 16,078 | 2,331 | 6.21 | 9.10 | 1.4 |

註：準農家の 戶數 및 耗地面積은 除外되었음.

資料：經濟企劃院

耕地規模別 農地保有狀況

1 9 6 7

| 規 模 別 | 農 家 戶 數 | 構 成 比 | 耗 地 面 積 | 構 成 比 |
|---------|-----------|-------|-----------|-------|
| | 戶 | % | 町步 | % |
| 1 未 滿 | 95,413 | 3.7 | 4,858 | 0.2 |
| 1 ~ 3 | 364,367 | 14.1 | 77,905 | 3.4 |
| 3 ~ 5 | 459,568 | 17.8 | 188,246 | 8.2 |
| 5 ~ 10 | 829,258 | 32.0 | 620,105 | 27.0 |
| 10 ~ 15 | 446,393 | 17.2 | 548,999 | 23.9 |
| 15 ~ 20 | 218,706 | 8.5 | 377,018 | 16.4 |
| 20 ~ 30 | 135,511 | 5.2 | 326,215 | 14.2 |
| 30 . . | 38,648 | 1.5 | 153,574 | 6.7 |
| . . | 2,586,864 | 100.0 | 2,296,209 | 100.0 |

註：準農家の 戶數 및 耗地面積은 除外되었음.

資料：農 林 部

協同的 資源의 결핍에 의한 失業은 低開發國 일반의 양상이기는 하나 반드시 農業上의 過

剩人口나 失業의 問題와는 관련이 없는 諸國(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도 있으므로 潛在失業의 存否는 低開發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低開發國의 失業은 古典派的 失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失業의 型은 보다 발전된 工業化經濟의 양상인 熟練勞動의 周期的 失業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有效需要의 부족의 隨伴物인 것이며 이것이 缺乏함으로 말미암아 勞動의 失業은 다른 補完的 生産諸要因의 失業과 아울러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先進經濟에 있어서의 失業의 對策은 後進經濟에 있어서의 古典的 失業을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註8).

그런데 韓國에 있어서의 이러한 古典的 失業은 經濟成長이 進전되는데 따라서 도리어 치열하게 되는 傾向이 있으니 그 이유는 이러한 失業의 量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存在가 더욱 明白하게 되며 그 社會的 意義가 더욱 切實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潛在失業은 원래 오래된 家族共同體 속에서 은폐되어 있었거니와 經濟成長은 이 家族共同體의 觀念을 變換시키며 潛在失業의 소굴을 파괴시키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 農業面에 있어서의 潛在失業과 都市에 있어서의 賃金은 일정한 關係를 保有하게 된다는 것이니 潛在失業이 豊富하게 現存한다면 農業에 있어서도 都市商工業에 있어서도 勞動需要를 擴大시키어서 失業者를 吸收할 때까지 賃금이 저하될 것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影響力이 作用하여서 不熟練勞動의 賃金率의 저하를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食生活을 중심으로 한 生存經濟(Subsistence econnmy)에 있어서 大家族制가 共同的生産과 消費의 形態를 이룬다는 것은 韓國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바이다. 家族의 “멤버”는 家族所得이 割當되거니와 그것은 반드시 또는 嚴密하게 각자의 個人的 貢獻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生存經濟가 점차 市場經濟의 發展으로 인하여 밀리게 되는 경우에서도 지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失業하고 있는 각 “멤버”가 家族所得의 몫을 차지한다는 權利는 그 소득을 保障하는 것임으로 그의 노동에 대한 留保價格(a reserve price)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失業者는 雇傭 其他에 의하여 家族所得의 分與權을 상실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니 그 賃금이 앞서 말한 바 留保價格을 초월하지 않는한 그러할 것이다. 이리하여 農業地帶에 있어서의 失業者의 現존은 고용기회가 있는 都市에 있어서의 賃金率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는 되지 않으므로 農村의 失業은 都市에 있어서의 均衡賃金率과 兩立할 수 있는 것이다(註9).

제 5의 문제점으로는 韓國의 工業化問題와 그 前提條件으로서의 資本形成問題가 있다. 經

(註 7) P. T. Bauer and B. S. Yamey, The Economic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Cambridge Economic Handbook), London 1957, p. 74

(註 8) Bauer and Yamey, ibid., p. 75

濟學的으로 여기에 가장 중대한 연구 領域이 展開되어야 하겠거니와 그러나 이 問題도 人口의 諸要因과 분리되어서는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 人口와 投資와의 關係에 대하여 Sauvy 에 의하면 投資에는 人口投資와 經濟投資가 있으니 前者는 成長하는 人口를 從來의 生活水準으로 지탱하는데 필요한 投資를 의미하며 後者는 이 生活水準의 向上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는 投資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人口投資의 규모는 人口增加率에 의존하며 따라서 급속한 人口成長을 가진 韓國과 같은 低開發國에 있어서는 人口投資가 모든 유효한 資本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經濟發展을 무한으로 저해하는 가공할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年 1%의 人口增加에 필요한 자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國民所得의 2~5%가 貯蓄되어야 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年 2.5%의 人口增加가 이루어지는 國家에서는 國民所得의 5~12.5%가 하등의 生活水準의 上昇을 隨伴하지 않는 人口投資로 吸收될 것이다. (註10) 最近에 實施된 人口 “센서스”에서 發表된 2.4%라는 自然增加率은 韓國의 投資問題 내지 資本形成問題에 있어서 現實의으로도 또한 이론적으로도 하나의 難題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自國內에서의 貯蓄에 기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外國資本에도 의존하여야 한다.

國民總生産에 對한 比率로서의 投資와 그 資金源泉

(單位 : %)

| | 1967~1971 | 1972~1976 | 1977~1981 | 1982~1986 |
|-------|-----------|-----------|-----------|-----------|
| 國民貯蓄率 | 14.0 | 19.8 | 23.5 | 26.5 |
| 政府貯蓄率 | 4.4 | 7.9 | 11.2 | 14.0 |
| 民間貯蓄率 | 10.5 | 11.9 | 12.3 | 12.5 |
| 海外貯蓄率 | 6.7 | 2.8 | 0.4 | -0.6 |
| 總投資率 | 21.6 | 22.6 | 23.9 | 25.9 |

(RP政策研究室 推算)

끝으로 人口成長과 經濟發展의 問題는 현하 韓國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問題의 하나이다. 高出生率, 高死亡率의 “아시아”的 人口樣式이 이미 무너지고 高出生率, 低死亡率이라는 相關關係下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膨脹力을 가진 人口成長力이며 이것이 韓國의 經濟發展을 종내 不可能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여기에 發展의 可能性을 지니게 될 것인가 關心事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註 9) Bauer and Yamey, *ibid.* p. 77(註 10) United Nations, *ibid.*, p. 278.

人口增加가 항상 國民所得의 증가를 吸收하여 버린다는 경향 즉 “말서스”의 “디렘머”가 韓國에서도 이미 消費水準의 上昇에 대한 明白한 위협으로 되었거니와(註 11) 그것으로 말미암아 消費水準이 生存水準에 接近되어 있다면 전체로서의 經濟的 地位의 改善은 消費水準과 人口의 增加로 인하여 許容되지 않으며 消費水準이 上昇을 유지하여 累積的過程을 개시하게 되는데 필요한 資本形成의 成長은 이것에 對應한 貯蓄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實際에 있어서 消費水準이 낮은 상태하에서 個人間에 있어서의 貯蓄의 필요한 증가를 무엇으로 形成할 것인가는 매우 곤란한 것이다. 歷史적으로 이것을 打開하는 힘은 보통 技術的 革新이라야만 한다고 하였으니 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에는 新市場의 開拓과 같은 다른 種類의 革新도 있었을 것이나 하여간 “말서스”의 “디렘머”의 關鍵은 技術的 停滯라는 것이다(註 12).

이것에 관하여 Belshaw 는 一國의 總實質所得은 勞動의 量質과 富의 量質과의 函數이며 여기에 富라는 것은 自然資源(土地)과 資本으로서 이 資本과 人間勞動과의 能率에 質的變化를 가하는 것이 革新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消費水準의 累積的增加라는 의미에서의 經濟發展은 이러한 諸變數(勞動, 資本, 革新)의 하나나 또는 전부에 걸친 증가가 生産量을 人口보다 더욱 신속하게 증가시키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에 影響을 주는 다른 事項(註 13)은 要因收穫의 法則(Law of factor returns)과 規模經濟(Economies of Scale)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人口增加는 그 자신 生産力을 증가시킨다는 通俗信念이 있으나 이것은 資本의 필요에도 規模經濟에 影響을 주는 제조건에도 充分한 고려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人口成長이 消費水準의 改善을 수반하였다면 이것은 資本成長과 技術的 改善에 기인된 것이다(註 14).

韓國과 같은 人口조밀한 低開發國의 消費水準의 扎实的 改善은 人口增加의 前提下에서는 D. Ghosh 가 말한 바와 같이 悲觀的 狀態에 있으니 資本財를 높이려고 한다면 生産水準을 犧牲하여야 하며 生活水準을 높이려고 한다면 急速한 人口增加로 말미암아 당장에 암초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急速한 人口增加에도 불구하고 技術的 進歩의 潜在力에 信賴를 걸면서 이미 알려지고 있는 技術의 廣範한 應用과 社會開發을 추진하는 동시에 人口의 증가를 經濟進歩의 可能的인 樞軸으로 간주하여 가령 적절한 生産技術이 채용된다면 豊富한 勞動供給의 利益도 創造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兩者의 見解가 있으니 그 하나는 過剩人口

(註 11) H. Belshaw, Population Growth and Levels of Consump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Countries in Asia, London 1956

(註 12) H. Belshaw, *ibid.*, p. 49

(註 13) H. Belshaw, *ibid.*, p. 55

(註 14) H. Belshaw, *ibid.*, pp. 65~66

에 대한 공격으로 유일한 해결을 發見하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技術的 또는 道德的 근거로 이러한 공격에 반대하거나 또는 不必要하다는 것이다. 大部分의 見解는 이러한 兩極端의 사이에 中間的 立場을 지지하고 있거니와 하여간 實際的 科學的 研究는 아직 不足하며 道德的 其他의 偏見에 치우치고 있다 하겠다.